



주 제:	“거룩한 변모”	“사순 제 2주일” (다해)	2007년 3월 4일
복음 묵상:	루카 9,28 나-36	창세 15,5-12.17-18	필리 3,17-4,1 또는 3,20-4,1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잠이 깨고 나서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가 나서서 “초막 셋을 지어 함께 살자”고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잠이 든 사람은 “하느님 말씀과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영적인 혼수상태에 걸린 사람에게 약이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들과 딸들이 영적인 병이 올 때는 약을 꼭 주십니다. 그 약은 바로 “고통이요, 십자가”입니다. 분명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혼수상태”에 걸렸거나, “영이 잠들어 있을 때”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광주 조창현신부님)

평화 기도회	“주님의 거룩한 변모”	2007년 3월 1일(목요일)
진행: 이 레나	음악: 정 버나드	참가 가족: 10 명
복음 묵상: 루카 9,28-36	공동찬미: 시편 27 편	창세기 15:5-12, 17-18, 필리피 3:17-4:1

나눔:

- *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넋이 나갈 정도로 좋아했었을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기도회나 피정 등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만큼은 주님 안에서 큰 기쁨과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또 그 안에 항구히 머물러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현실이 항상 좋은 일들로만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매일의 삶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본받아 주님께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로 단단히 무장하여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하겠습니다
- * 주님의 속성이 지극히 높고 영광스러운 것이기에 주님을 보려면 저 높은 곳으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 인간적인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충분히 높다고 생각했던 그 곳에 도착했다고 믿어지던 순간에 주님은 그 높은 ‘산’에 계시지 않았습니니다. 주님은 나와 같은 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존귀한 속성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다시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게도 뵈고 싶었던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따라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함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저 낮은 곳으로의 길을 따라 나설 때 나의 노력으로써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저 높은 곳으로 올려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져 봅니다.
- * 오늘 시편 말씀에 있는 “나를 거슬러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안심하리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 겪는 ‘전쟁’과 같은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 *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바꿔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나누어 주실 것이라고
- * 사순 시기는 고통의 시기만이 아니라 커다란 은총의 시기입니다. 예전 사순 시기에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며 기도하던 중 주님께서 너무나도 눈부시게 하얀 겹겹의 옷을 입시고 나타나신 모습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황홀하게 아름답으신 주님을 반드시 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사순 시기를 보냈으면 합니다.
- *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자비를 닮으려면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과 기도가 필요한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족하다 할 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가상히 보시고 반드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들을 변모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 *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아니라 “선택된” 3인의 제자들에게만 당신의 거룩한 변모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된 3인의 제자들에게 전혀 비할 바 없이 초라한 모습의 우리들에게조차도 당신의 영광된 모습을 꼭 드러내 보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 * 미사 중 거양 성체 중에 거룩한 변모의 영광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사 항상 기도드려 왔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내가 과연 될까?”하는 회의와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사순 시기 동안 예전 성령 세미나 때 청했던 굳건한 믿음의 은사를 다시 한 번 청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 * 주님의 거룩한 변모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최근에 개인적으로 묵상 중인 세 가지의 주제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는 아름답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더 큰 것을 위해) 기도하라”.
- *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서 빛나는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후손들에게 내리실 축복에 대한 vision 을 보여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가 당신의 손길이 필요할 때에 미리 적절하고 효과적인 vision 을 보여 주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도 장차 주님 안에서 변화될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에 대한 vision 과 희망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믿습니다.

공지 사항:

- **복가주 성령기도회 연합의 회장으로 봉사하시던 샌프란시스코 본당의 강 아녜스 자매님께서 타지역으로 이주하심에 따라 부회장 직을 맡고 계시던 우리 본당의 박 아가다 자매님께서 새 회장으로 봉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산호세 본당의 성령기도회 회장직은 박 소피아 자매님께서 맡아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자매님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다음 주 수요일에는 **수요/평화 기도회** 합동으로 **기도회와 치유예절**을 갖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은혜로운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가족들의 소식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 재료가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기쁨과 즐거움은 나눌수록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보낼곳: kimjiman@comcast.net)

복음 [루가 9,28 ~-36]



이 말씀을 하신 뒤 여드레쯤 지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 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 그러자 난데없이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께서 멀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거기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떠나려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수께 말하였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뒤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들어 가자 제자들은 겁에 질려 버렸다. 이 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그 소리가 그친 뒤에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참석자:

노 올리아노, 박 미카엘, 박아가다, 이 레나, 최카타리나, 정버나드, 최베드로, 김카타리나, 박소피아, 김 미카엘라.